



## 2025년 동남권 통계 포럼 개최

- 주제: AI시대, 데이터로 여는 동남권의 미래 -

국가데이터처 동남지방통계청과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『AI시대, 데이터로 여는 동남권의 미래』 포럼이 11월 18일(화)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개최되었다.

이번 포럼은 동남권이 직면한 제조업 위기와 인구 유출 등 중대한 지역 현안을 데이터 중심으로 진단하고,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성장 해법과 정책 로드맵을 모색하기 위해 양 기관이 최초로 협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.

이번 포럼에서는 배혜림 부산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원장의 △데이터 기반 AI 해양 전략에 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, 한국은행 부산본부의 △지역산업연관표로 보는 동남권 경제의 특징 및 시사점, 동남지방통계청의 △데이터로 본 이커머스로의 동남권 산업 다각화 △데이터로 보는 동남권 외국인 취업자의 특성 분석 등 동남권의 현실과 미래를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되었다.

양동희 동남지방통계청장은 “급격한 시대 변화와 우리 지역의 당면한 과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데이터라 할 수 있으며,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재탄생한 것 또한 이러한 시대적 소명이라 생각한다”고 밝혔다.

- 붙임: 1. 2025년 동남권 통계 포럼 발표 내용 1부  
2. 2025년 동남권 통계 포럼 사진(별첨). 끝.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국가데이터처 동남지방통계청<br>지역통계과 | 책임자 | 과 장 | 정은정 (051-850-3350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팀 장 | 신연주 (051-850-3351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주무관 | 김명주 (051-850-3352) |

**주제 발표1: 지역산업연관표로 보는 동남권 경제의 특징 및 시사점**

- **[분석배경]** 지역산업연관표는 지역별 경제구조와 지역간 산업연관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·도를 대상으로 작성한 투입산출표로, 지역 단위 분석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통계임
- **[특징]** 올해 공표된 2020년 기준 지역산업연관표와 2015년 기준 지역산업연관표를 비교·분석한 결과 동남권 경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임

|             |          | 주요 특징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|---|
| 경제구조        | 경제규모     | - 전국 총산출액 중 동남권 비중 축소('15년 18.0% → '20년 15.4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공급·수요구조  | - 수입(10.8%)·수출(13.4%) 비중 가장 높음<br>- 경제권내 이입(6.2%)·이출(6.2%) 비중 비수도권 중 가장 높음      |
|             | 산업구조     | - 공산품 중심(총산출액 중 공산품 비중 55.0%)<br>- 서비스 비중 상승('15년 31.1% → '20년 35.5%)           |
|             | 투입구조     | - 부가가치율(38.8%) 가장 낮음<br>- 수입의존도(13.8%) 가장 높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최종수요구조   | - 수출(34.8%) 및 지역내생산품 수요(73.9%) 비중 가장 높고, 투자(18.3%) 비중은 가장 낮음                    |
| 지역간 교역구조    |          | - 순이출은 마이너스이며 규모가 확대('15년 -6.5조원 → '20년 -34.9조원)<br>- 교역대상 지역이 수도권, 동남권, 경북에 집중 |
| 지역간 산업연관 효과 | 생산유발효과   | - 전체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크고, 지역내 생산유발효과는 비수도권 중 가장 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부가가치유발효과 | - 전체 부가가치유발효과가 가장 낮고, 지역내 부가가치유발효과도 낮은 편  |
|             | 취업유발효과   | - 취업유발효과는 전국 평균 수준  |

주: ( ) 내 수치는 별도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2020년 기준

- **[시사점]** 수도권 경제력 집중 심화는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동남권 등 비수도권지역의 성장동력 강화 필요
  - 지역내 주력산업 및 주요 수출산업 중심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, 보건 및 사회복지·운송·도소매 등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방안 강구
  -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, 사업환경의 비교우위 강조, 유기적인 산학연 협조 체계 확립 등을 통해 설비투자 및 R&D투자 확대
  - 동남권 전체 차원에서 광역교통망 등 인프라 구축, 특화산업 육성 등 산업연계를 강화하고, 장기적으로는 교역구조 다변화 노력 필요

## 발표2: 데이터로 본 이커머스로의 동남권 산업 다각화

□ [분석배경] 동남권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\*하고 제조업 취업자수가 감소세\*\*를 보임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 필요

\* 동남권내 서비스업 비중(총부가가치 기준) 변화

: '00년 47.7% → '11년 46.7% → '20년 55.8% → '23년 53.6%<sup>P</sup>

\*\* 2015년 대비 2024년 제조업 취업자수 증감율 : 부산 -25.4%, 울산 -17.5%, 경남 -10.6%

□ [이커머스\* 중요성] 2017~24년 중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연평균 약 15.6% 성장하였으며, 2024년 창업 사업체수 1위(전자상거래소매업, 전체의 14.0%) 및 3위(전자상거래소매중개업, 4.6%)를 기록

\* 전자상거래소매중개업(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하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상품을 소매할 수 있도록 중개 등)과 전자상거래소매업(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)을 지칭

□ [이커머스 개인사업체 현황\*] 기업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이커머스 개인사업체 현황을 지역별로 다각도로 분석

\* 별도 표기되어 있지 않은 수치는 2023년 기준

○ (성장세) 2014년 대비 2023년 사업체수·매출액은 각각 445.0%, 316.3% 증가

○ (사업체 분포) 전체 사업체의 64.1%가 수도권에 집중

○ (평균 매출액 분포) 대구(66.0백만원), 부산(60.8백만원) 등이 수도권을 상회

○ (고소득\* 사업체 분포) 동남권 고소득 사업체수는 지속 증가('14년 998개 → '24년 4,474개)하였으며 증가세(+348%)가 전국 평균(+273%)을 상회

\* 매출액 1억 2천만원 이상

○ (연령대별 특성) 전국적으로 50대 이상 창업 사업체수는 2014년 대비 약 684%(연평균 25.7%) 증가하여 전체의 18.4%를 차지

- 50대 이상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으며, 시간이 흐를수록 50대 이상의 경쟁력이 높게 나타남 (동남권 기준, 5년 생존율 14.1%)

- 반면, 20대 이하의 경우 폐업률(동남권 기준 38.3%)은 가장 높고 생존율(5년 생존율 7.2%)은 가장 낮았음

### 발표3: 데이터로 보는 동남권 외국인 취업자의 특성

- [분석배경] 지역 인구 감소 및 인구유출 심화 등으로 동남권 주요 산업에서 인력 미스매치가 지속되어 외국인 유입이 확장됨에 따라 외국인 노동력 증가가 지역 산업구조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필요
- [외국인\* 현황] 동남권 시도별 외국인('24년 기준)은 경남(11만 7천명), 부산(6만 3천명), 울산(3만 4천명) 순으로 많음
  - \* 대한민국에 91일 이상 상주하는 외국의 국적만을 가지고 있는 자
  - (체류자격별\*) 부산은 유학생(29.7%)이, 울산·경남은 비전문취업(각각 21.1%, 34.7%)이 가장 많음
    - \* 비전문취업, 방문취업, 전문인력, 유학생, 재외동포, 결혼이민자, 영주, 기타로 구분
  - (국적별) 부산·경남은 베트남(각각 24.3%, 22.2%)이, 울산은 한국계 중국(27.8%)이 가장 많음
- [취업자 특성] 동남권 시도별 외국인 취업자 규모('23년 기준)는 경남 (57,141명), 부산(23,640명), 울산(17,191명) 순이며, 전체 외국인 중 취업자 비중은 울산(67.0%), 경남(62.9%), 부산(49.0%) 순임
  - (산업 분포) 부산 외국인은 서비스업 종사자(45.6%)가 가장 많고, 울산·경남은 제조업 종사자(각각 57.1%, 67.4%)가 절반 이상을 차지
  - (제조업) 제조업 외국인 취업자는 경남(37,937명), 울산(9,789명), 부산(9,650명) 순으로 많음
    - 부산·경남은 '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각각 18.9%, 20.4%)', 울산은 '기타 운송장비 제조업(38.5%)'이 가장 많음
    - 부산·울산·경남 모두 남성 비중이 80% 이상이며, 상용근로자 비중이 90% 내외로 매우 높음
  - (서비스업) 서비스업 외국인 취업자는 경남(10,786명), 부산(10,762명), 울산(4,446명) 순으로 많음
    - 부산·울산은 '숙박 및 음식점업(각각 22.6%, 26.3%)', 경남은 '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(31.3%)'이 가장 많음
    - 부산·울산·경남 모두 여성 비중이 남성보다 소폭 높으며, 상용근로자 비중이 50~60%대로 나타남